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과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

2013. 7



## 목 차

< 요약 > .....	5
I. 조사 개요 .....	7
1. 조사목적 .....	7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	7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7
4. 조사내용 .....	7
II. 조사 결과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	8
1. 주요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	8
2. 성과공유제 도입·시행에 대한 기업인식 .....	9
III. 시사점 및 보완과제 .....	12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12
2. 보완과제 .....	12
< 별 첨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결과 .....	14

■ 이 자료는 사업팀 이도영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490

FAX : 02-3771-0143

E-mail : ldy@fkilsc.or.kr



###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6. 4 ~ 2013. 6. 24(21일간)
- 조사대상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과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 총 114社 중 89社 응답(응답률 : 78.1%)
  - \* 협약기업(45社)·지수 평가대상기업(109社)의 총 154社 중 협약기업·지수평가 중복기업(40社)을 제외한 114社
- 조사방법 : 온라인·이메일·전화조사(설문지 응답) 및 성과공유 종합관리시스템(benis.or.kr) 데이터베이스 분석
- 조사내용 : 성과공유 추진실적(2012.6~2013.6)·계획(2013.6~2014.6), 성공사례 및 성과공유 도입·시행에 대한 인식 등

### 2. 조사결과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 2012년 6월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 체결 이후, 성과공유 과제와 참여 협력사 수가 각각 4배, 9배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가 크게 개선됨
  - 협약체결 이전(2012. 5)까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추진과제는 268건, 참여 협력사 수는 75社에 불과했으나, 협약체결 이후 지난 1년간 (2012. 6~2013. 6) 추진과제 1,037건, 협력사 수 685社로 크게 늘어남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은 협약체결 이전에는 28社였으나, 협약체결 이후 48社로 71.4% 늘어남
- 한편, 이들 기업의 성과공유시행으로 인한 재무성과는 1개 과제당 5억 1,55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총 1,037건의 추진과제 중 지난 1년 이내에 종결된 67건의 성과공유 추진과제의 경우, 1개 과제당 대기업은 2억 4,041만원(46.6%), 협력사는 2억 7,513만원(53.4%)의 이득을 얻어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영실적이 개선됨
- 또한, 앞으로 1년간 지금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추진과제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향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 50.0%(48社 → 72社) 더 많아지고, 추진과제 건수도 42.4%(1,037건 → 1,477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협력사 수도 48.8%(685개사 → 1,019개사) 증가할 전망임

- 그간 업종별로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이 개발·활용되고, 성과공유제가 경영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인식이 높아져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응답기업들은 성과공유제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 공유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음
  -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에는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제고’(51.7%)에 이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향상’(29.2%)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또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48개사는 동 제도의 도입사유로 ‘자사와 협력사 모두의 생산성·이익 향상에 도움이 돼서’(58.3%)가 가장 많았고, ‘동반성장지수, 정부사업의 가점 등 인센티브 때문에’(25.0%), ‘자사의 실익은 미미하나 협력사와 동반성장 차원에서’(16.7%)의 순으로 응답함
- 주요 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시행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 등으로 기술력이 향상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공사례가 많았음
  - 삼성전자(주) - 자화전자(주) : 고성능 카메라의 필수장치인 손떨림 보정장치 및 셔터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삼성전자는 연간 9억원 가량의 원가를 절감하고 자화전자는 매출을 26억 6,000만원 늘려 兩社 모두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둠
  - 현대모비스(주) - 우창산업(주)·(주)에프티이앤이 : 자동차 램프 내부의 온도차이로 발생된 습기를 제거하고 불순물 유입을 막는 벤트캡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창산업과 에프티이앤이는 연평균 3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림
  - GS건설(주) - (주)일양토건 : 양사는 가교형 받침 공법 개발에 성공하여 8개월의 공기단축과 공사원가 40%(7억원) 절감, 공동특허를 출원한 한편, 향후 유사 프로젝트 시 일양토건과 수익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참여의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양해각서도 체결함
- 한편, 주요 기업들은 성과공유 시행상 애로사항으로 성과측정과 분배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도에 대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들은 시행상 애로에 대해 ‘성과측정·성과분배 기준 불명확’(39.3%), ‘협력사의 인식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취약’(28.1%), ‘전담인력·유관부서의 제도이해 부족’(16.9%),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미흡’(15.7%)의 순으로 응답함
  - 성과공유제 미도입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입·시행절차 복잡’(31.7%), ‘협력사 참여 미흡’(21.9%), ‘노력(자본·인력·시간 등)에 비해 얻는 성과 미미’(19.5%), ‘인센티브 부족(9.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 I. 조사 개요

---

### 1. 조사목적

-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2012. 6)체결 이후,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모두 성과공유제가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이에, 본 센터는 주요기업의 성과공유 시행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동 제도의 도입기업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함

###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 조사주관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조사대상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과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114社)
  - 협약기업(45社)·지수 평가대상기업(109社)의 총 154社 중 협약기업·지수평가 중복기업(40社)을 제외한 114社
- 응답률 : 78.1%(총 114社 중 89社 응답)

###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이메일·전화조사(설문지 응답) 및 성과공유 종합관리시스템(benis.or.kr) 데이터베이스 분석
- 조사기간 : 2013. 6. 4 ~ 2013. 6. 24(21일간)

### 4. 조사내용(별첨 참조)

- 성과공유 추진실적(2012.6 ~ 2013.6)·성공사례 : 도입기업 현황, 추진과제 및 참여 협력사 수
- 성과공유 추진계획(2013.6 ~ 2014.6) : 도입기업 전망, 추진과제 및 참여 협력사 수
- 성과공유 도입·시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 : 성과공유 도입·미도입 사유, 성과공유 기대효과 및 애로요인, 성과공유 확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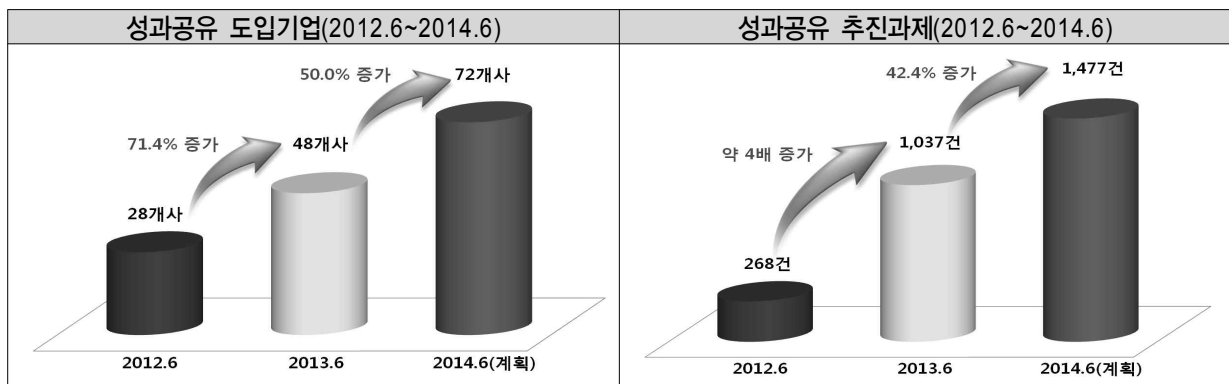


## Ⅱ. 조사 결과: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 1. 주요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 2012년 6월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 체결 이후, 성과공유 과제와 참여 협력사 수가 각각 4배, 9배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가 크게 개선됨
  - 협약체결 이전(2012. 5)까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추진과제는 268건, 참여 협력사 수는 75社에 불과했으나, 협약체결 이후 지난 1년간 (2012. 6~2013. 6) 추진과제 1,037건, 협력사 수 685社로 크게 늘어남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은 협약체결 이전에는 28社였으나, 협약체결 이후 48社로 71.4% 늘어남
- 한편, 이들 기업의 성과공유시행으로 인한 재무성과는 1개 과제당 5억 1,55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총 1,037건의 추진과제 중 지난 1년 이내에 종결된 67건의 성과공유 추진과제의 경우, 1개 과제당 대기업은 2억 4,041만원(46.6%), 협력사는 2억 7,513만원(53.4%)의 이득을 얻어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영실적이 개선됨
- 또한, 앞으로 1년간 지금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추진과제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향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 50.0%(48社 → 72社) 더 많아지고, 추진과제 건수도 42.4%(1,037건 → 1,477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 성과공유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48社) 중 77.1%(37社)가 확대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 기업 중 아직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41社) 중 58.5%(24社)는 1년 이내 도입계획임
  -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협력사 수도 48.8%(685개사 → 1,019개사) 증가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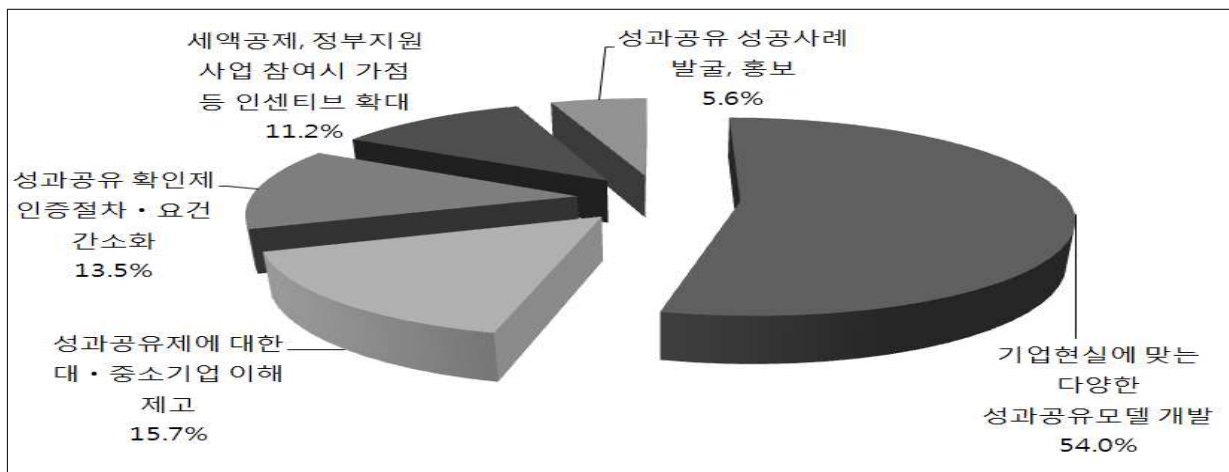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 성과공유제 도입·시행에 대한 기업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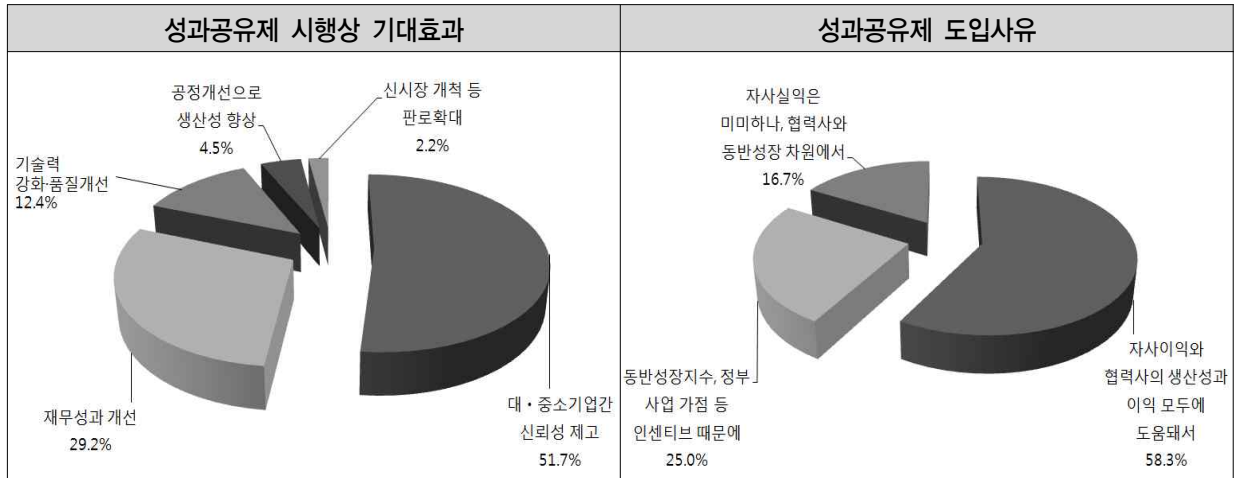
- 그간 업종별로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이 개발·활용되고, 성과공유제가 경영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인식이 높아져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응답기업들은 성과공유제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4.0%로 가장 많았음
-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54.0%), ‘성과공유제에 대한 대·중소기업 이해 제고’(15.7%), ‘정부의 성과공유 확인제 인증절차·요건 간소화’(13.5%), ‘세액공제,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11.2%) 순임

<기업의 자발적 성과공유제 참여 확산방안>



-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에는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제고’(51.7%)에 이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향상’(29.2%)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제고’(51.7%), ‘재무성과(원가절감, 매출액, 영업이익률 증대 등) 개선’(29.2%), ‘기술력 강화·품질 개선(12.4%),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4.5%), ‘신시장 개척 등 판로확대’(2.2%) 순으로 응답함
- 또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48개사는 동 제도의 도입사유로 ‘자사와 협력사 모두의 생산성·이익 향상에 도움이 돼서’(58.3%)가 가장 많았고, ‘동반성장지수, 정부사업의 가점 등 인센티브 때문에’(25.0%), ‘자사의 실익은 미미하나 협력사와 동반성장 차원에서’(16.7%)의 순으로 응답함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기대효과 및 도입사유>



- 주요 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시행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 등으로 기술력이 향상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공사례가 많았음

###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의 성과공유 우수사례>

◎ **삼성전자(주) - 자화전자(주)의 성공사례** : 삼성전자는 고성능 카메라의 필수장치인 손떨림 보정장치 및 셔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원가절감과 성능향상을 위해 국산화 개발이 절실했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들어가는 8억 3천만원의 비용부담 때문에 국산화 개발에 선뜻 나서는 협력사가 없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화전자에 개발비 5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2명의 기술전문인력을 파견했다.

양사의 협력결과, 손떨림 보정장치와 셔터가 일체형으로 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삼성전자는 연간 9억원 가량의 원가가 절감되고, 자화전자는 매출이 26억 6,000만원이 늘어나 兩社 모두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현대모비스(주) - 우창산업(주)·에프티이앤이의 우수사례** :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램프 내부의 온도차이로 발생된 습기를 제거하고, 불순물 유입을 막는 벤트캡의 국산화가 필요했으나, 관련 제조기술이 없고, 특허장벽에 막혀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 현대모비스는 2차 협력사인 에프티이앤이가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기술개발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노섬유로 된 벤트소재의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이후 신소재 개발로 특허장벽을 넘게 되자, 에프티이앤이는 안개등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인 우창산업에 신소재를 납품하여 벤트캡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국산화 제품개발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창산업과 에프티이앤이는 연평균 3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 GS건설㈜ - ㈜일양토건의 우수사례 : GS건설은 지하철 2호선의 하부로 지나가는 9호선 터널 굴착공사를 맡았으나, 굴착과정에서 2호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난공사여서 정해진 공기를 준수할 수 없었다.

이에, GS건설은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기일과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의 기술본부와 현장의 전문인력 등이 협력사인 일양토건과 손을 잡고, 신공법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양사는 가교형 받침 공법 개발에 성공하여 8개월의 공기단축과 관련 공사원가가 40%(7억원)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GS건설은 일양토건과 신공법에 대한 공동특허를 출원했고, 향후 국내외 유사한 공사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일양토건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참여의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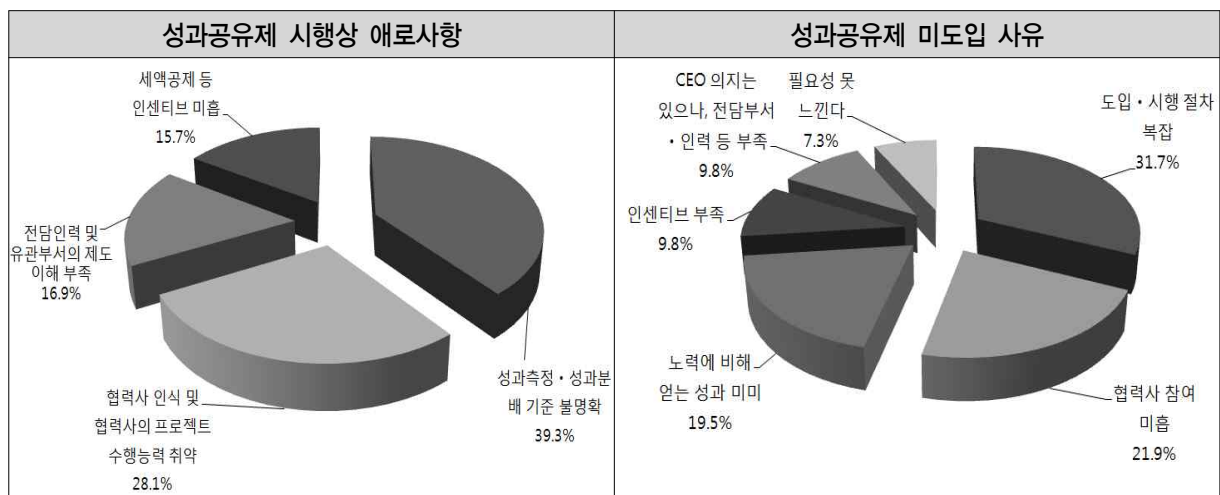
□ 한편, 주요 기업들은 성과공유 시행상 애로사항으로 성과측정과 분배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도에 대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들은 시행상 애로에 대해 ‘성과측정·성과분배 기준 불명확’(39.3%), ‘협력사의 인식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취약’(28.1%), ‘전담인력·유관부서의 제도이해 부족’(16.9%),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미흡’(15.7%)의 순으로 응답함

- 예컨대, A社は 협력사들이 동반성장을 시혜적인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혁신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성과공유제에 대한 협력사의 참여의지가 낮아서 확산에 애로 있음

○ 성과공유제 미도입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입·시행절차 복잡’(31.7%), ‘협력사 참여 미흡’(21.9%), ‘노력(자본·인력·시간 등)에 비해 얻는 성과 미미’(19.5%), ‘인센티브 부족(9.8%)’등의 순으로 응답함

<성과공유제 시행상 애로사항 및 미도입 사유>



### Ⅲ. 시사점 및 보완과제

####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추진과제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과공유제로 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등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의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임
  - \* 성과공유제 도입사유 : 자사·협력사의 생산성과 이익에 모두 도움이 돼서(58.3%)>동반성장지수, 정부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때문에(25.0%)>자사의 실익은 미미하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차원에서(16.7%)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들은 성실한 협약이행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협약체결 이전에는 성과공유 추진과제 268건, 참여 협력사 수 75社에 불과했으나, 협약체결 이후 지난 1년간 추진과제 1,037건, 참여 협력사 수 685社로 각 4배·9배가량 증가함
- 앞으로 기업현실과 업종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측정과 성과 분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공유 시행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성과공유제 확산의 관건임
  - 주요기업들은 성과공유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측정·성과분배 기준이 불명확한 시행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음
  - \* 성과공유제 참여 확산방안 :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54.0%)>성과공유제에 대한 대·중소 기업 이해 제고(15.7%)>정부의 성과공유확인제 인증절차·요건 간소화(13.5%)>세액공제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11.2%)>성과공유 성공사례 발굴, 홍보(5.6%)
  - \* 성과공유제 시행상 어려움 : 성과측정·성과분배 기준 불명확(39.3%)>협력사 인식 및 협력사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취약(28.1%)>전담인력 및 유관부서의 제도 이해 부족(16.9%)>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미흡(15.7%)

#### 2. 보완과제

- 현재 성과공유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미 모델이 개발된 업종은 지난 1년간 성과공유 시행사례를 분석하여 더욱 다양한 시행모델을 보강해야 함

- 지난해 모델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물류, 홈쇼핑, 포털서비스, 건설·국토개발 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해야함
- 지난 1년간 성과공유확인제에 등록된 추진과제를 분석하여 현행 성과공유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모델화하고, 등록과제 중 성과공유제로 확인 받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공유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부족이 성과공유 확산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컨설팅을 시행해야 함
  - 성과공유제 도입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교육을 시행중이나, 개별기업별로 경영시스템이 상이하여 매뉴얼과 교육내용만으로 경영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각 대기업별로 해당 대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과공유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성과공유제 전문가가 도입방안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측정·분배기준이 불명확하여 시행상 애로를 겪고 있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의 구체적인 성과공유 성공사례를 전파해야 함
  -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지 수년이 경과한 기업들은 성과측정·분배기준의 구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측정제도 등 다양한 노하우가 있음
  - 따라서, 이들 성과공유 우수기업의 구체적인 시행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성과공유제를 갖 도입한 기업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실태분석」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6. 4 ~ 2013. 6. 20(17일간)
- 조사표본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 및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총 114社)  
-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기업(45社)과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109社)은 총 154社이며, 이 중 협약 체결·지수평가 중복기업(40社)를 제외한 114社
- 응답률 : 78.1%(114社 중 89社)
- 조사방법 : 이메일·전화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2012년 성과공유 실적, 2013년 성과공유 계획, 성과공유 도입·시행에 대한 기업인식 등

## I.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성과 및 추진계획

### 1. 성과공유제 시행성과(2012.6.~2013.6.)

#### 1-1. 주요 기업(114社)의 추진실적

2012년 성과공유 추진실적	도입기업 인증 48社	추진과제 1,037건		참여 협력사 685社	
		종결과제 67건	진행과제 970건	종결기업 59社	진행기업 626社

#### 1-2. 성과공유 시행기업의 재무성과(67개 종결과제 기준)

구분	성과공유 시행기업 재무성과 : 총 345억 4,104만원	
	대기업	협력사
총계(종결과제 67건)	161억 745만원	184억 3,359만원
과제당 평균성과	2억 4,041만원	2억 7,513만원

### 2. 2013년 성과공유제 시행계획(2013.6.~2014.6.)

#### 2-1.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대 계획

구분	성과공유제 既도입 (48社, 53.9%)		성과공유제 도입예정 (24社, 27.0%)		1년 이내 도입계획 없다 (17社, 19.1%)	합계
	도입했으나, 확대계획 없다	도입했으나, 확대계획 있다	6개월 이내 도입할 계획이다	1년 이내 도입할 계획이다		
응답수	11	37	10	14	17	89
응답률	12.3%	41.6%	11.3%	15.7%	19.1%	100.0

#### 2-2. 성과공유제 확대 규모

	참여 대기업 (증가율, B-A/A)	추진과제 (증가율, B-A/A)	참여 협력사 (증가율, B-A/A)
2012년 실적(A)	48社	1,037건	685社
2013년 계획(B)	72社 (50.0%)	1,477건 (42.4%)	1,019社 (48.8%)

## II. 성과공유제 도입·시행에 대한 기업인식

### 1. 성과공유제 도입사유(既 도입기업 응답)

구분	자사와 협력사의 생산성과 이익 모두에 도움돼서	동반성장지수, 정부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때문에	자사실익은 미미하나, 협력사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합계
응답수	28	12	8	48
응답률	58.3%	25.0%	16.7%	100.0

### 2. 성과공유제 도입하지 않은 사유(未 도입기업 응답)

구분	도입·시행 절차 복잡	협력사 참여 미흡	노력(자본·인력·시간 등)에 비해 얻는 성과 미미	인센티브 부족	CEO 의지는 있으나, 전담부서·인력 등 부족	필요성 못 느낀다	합계
응답수	13	9	8	4	4	3	41
응답률	31.7%	21.9%	19.5%	9.8%	9.8%	7.3%	100.0

### 3. 성과공유제 시행의 경영상 기대효과

구분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제고	재무성과(원가절감, 매출액, 영업이익률 증대 등) 개선	기술력 강화·품질 개선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신시장 개척 등 판로확대	합계
응답수	46	26	11	4	2	89
응답률	51.7%	29.2%	12.4%	4.5%	2.2%	100.0

### 4. 성과공유제 시행상(또는 예상되는) 애로요인

구분	성과측정·성과분배 기준 불명확	협력사 인식 및 협력사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취약	전담인력 및 유관부서의 제도 이해 부족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미흡	합계
응답수	35	25	15	14	89
응답률	39.3%	28.1%	16.9%	15.7%	100.0

### 5. 기업의 자발적 성과공유제 참여 확산방안

구분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	성과공유제에 대한 대·중소기업 이해 제고	정부의 성과공유 확인제 인증절차·요건 간소화	세액공제,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성과공유 성공사례 발굴, 홍보	합계
응답수	48	14	12	10	5	89
응답률	54.0%	15.7%	13.5%	11.2%	5.6%	100.0



---

## 참고문헌

---

김경목(2011), “국내외 운영사례와 기업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3), “성과공유 확산일로..., 도입기업 50% 늘어날 전망”,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1),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 및 시사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13), “조금은 발칙한 성과공유제 매뉴얼”, 대중소기업협력재단